

교사의 날을 위한 9일기도

교리교사의 날을 준비하며, 9일 기도문을 나누어 드립니다.

9일간 매일 다른 지향으로 기도합니다.

첫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의 6가지 기도는

교리교사로서 만나는 대상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곱 번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3가지 기도는

교리교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일 기도가 교리교사를 위한 기도가 되리라 희망하며 함께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제34회 교리교사의 날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가 되길 희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교구 청소년사목국-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첫째 날)

1.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도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느님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어

창조 사업을 잇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 위임받은 소중한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내지 못한 부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소서.

세상의 새싹이며 희망인 어린이들과

내일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자비의 손길로

그들의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파괴된

이 세상의 어둠과 쾌락

신앙을 거스르게 하는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성장하면서 주고받은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며

중독과 위험과 불행에서 보호해주소서.

미성숙함에서 오는 거둬진 잘못과 실패
갈등과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소서.

성령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뜻을 항상 첫 자리에 두고
사랑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은총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둘째 날)

2. 이주민(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이주민을 위한 기도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위로해주시며,
빈곤과 폭력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인도해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주민들과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이 땅에서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17년 3월 2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인준)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셋째 날)

3. 할머니 할아버지들(조손 가정)을 위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

성 요아킴과 성 안나의 딸,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주 예수님.
온 세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사랑으로 굽어보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 모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원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호해주소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소서!

나이 들어서도 가정 내에서 튼튼한 신앙의 버팀목으로
고귀한 이상의 수호자로,
건강한 종교적 전통이 살아있는 보화가 되게 하소서.

지혜와 용기를 지닌 스승이 되게 하시어
성숙한 인간적, 영적 경험의 열매를
미래의 세대에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
가정과 사회가 조부모들의 존재와 역할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소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되기보다
언제나 존경받으며 사랑 속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 내내 평온하게 살아가며
어디서든 환대받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보호 아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시고
지상 순례 여정에 동반해 주시고,
당신의 기도로 언젠가 모든 가족이
당신께서 모든 이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안기 위해 기다리시는
천상 고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주교회의 여성 소위원회,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 번역)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넷째 날)

4.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를 위한 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러 오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물질 중심의 소비사회에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난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몫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당신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귄, 섬김, 나눔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가난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의 벗!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 7. 16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인준)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다섯째 날)

5.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인준 2020.2.26. -)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여섯째 날)

6. 지구(세상의 모든 피조물)를 위하여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찬미받으소서」 2015.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제6장 참조)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일곱째 날)

7.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 토마스모어의 자신을 위한 기도

주여,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필요한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잘 보전케 하여주소서.

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고 맑은 것을 알아보게 해주소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며
사물을 자연 질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지루함을 모르고
원망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모르는 영을 주소서.
나 자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해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소서.

행복하게 살며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유머를 이해하는 친절과
풍자를 포용하는 은혜를 주소서.

(성 토마스 모어. 1935년 시성.)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여덟째 날)

8.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위하여.

샤를 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

하느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의 제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성 샤를 드 푸코. 2022년 5.15일 시성)

(교리교사를 위한 9일기도 - 아홉째 날)

9. 세상의 모든 교리교사를 위하여.

교사의 기도

오, 주님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에 저에게 힘을 주시어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해주소서.
저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제가 준비한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저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소서.

저에게 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어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당신께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주소서.
당신께 큰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제가 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나이다.

배반자의 쌀쌀한 얼굴도 마다 않으신 당신의 그 친절을 저에게도 주시어
가면 뒤에 숨어있는 고독한 영혼을 보게 해주소서.

저에게 당신의 그 인내를 주시어 실패해도 낙심 말게 해주소서.
그들에게 당신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완고한 인간들 가운데서 일하다 가신 당신을 본받아야 되겠나이다.

저에게 당신의 그 겸손을 주시어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저도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며 저는 아무도 당신께로 인도할 수 없사오니
결코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은 말게 하소서.

저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저는 어른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들은 저만큼 자제력도 없으며
그 원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주소서.
학생들을 훈육하되 언제나 친절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해주소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에게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주소서.

젊은이들이 저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때에
제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주소서.
젊은이들에겐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면서도
저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제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세상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낸 공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저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